

“야생버섯, 따지도 먹지도 마세요”

행안부, 각별한 주의 당부 전문가조차 구분 어려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산행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야생의 독버섯을 식용으로 잘못 알고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1900여 종의 버섯이 자라고 있고,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략 400종(21%) 정도로 나머지 79%는 모두 독버섯이거나 식용가치가 없다. 요즘 같은 가을에는 송이, 능이, 싸리버섯 같은 식용버섯도 많이 자라지만, 생김이 비슷하면서 독이 있는 붉은싸리버섯이나 화경술발버섯 등의 독버섯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합계) 자연 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5건이며, 3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9월에는 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환자수도 27명(7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8월에는 남원시 수경봉에서 산행 중이던 등산객이 야생버섯 섭취 후 복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전체 발생건수 대비 환자수를 살펴보면 7.2명(36명/5건)으로, 1건의 사고로 8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버섯 사고는 채취자 혼자 먹고 중독되기 보다는 따온 버섯을 가족이나 지인들과 나누어 먹다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

식용과 독버섯은 민간에 떠도는 속설 등으로는 구분이 어려워, 야생의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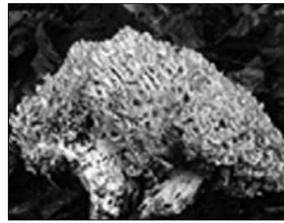
특히, 다음과 같은 잘못된 민간 속설만 믿고 야생버섯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 ▶세로로 잘 찢어지는 버섯은 모두 먹을 수 있다. ▶은수저 등 은제품을 걸게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 요리에는 독이 없다. ▶벌레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먹을 수 있다. ▶독버섯은 버섯 대에 따라 없다. ▶독버섯이라도 가지나 들기름과 함께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

또한,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은 후 현기증을 비롯한 구토나 복통, 설사, 환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이 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먹었던 야생버섯이나 버섯의 사진이 있으면 가져가도록 한다.

서로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야생버섯은 주변 환경에 따라 모



노티리버섯(식용)



싸리버섯(식용)



화경술발버섯(독)



붉은싸리버섯(독)

가져도, 7.5시간 근무제도,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스톡옵션, 우리사주, 재충전 휴가지원), 직원을 배려한 다양한 복지제도(건강증진을 위한 cheerup-day, 토닥 토닥 e-복지제도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의 의류제조·판매 기업 (췌지앤지엔터프라이즈)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사내복지기금 운용 등), 직원의 근무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생산 전 공정 스마트팩토리 구축 중),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정원 외 별도 인력 채용 및 교육 등) 등 인재 육성 중심 지향 기업을 지향하여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농협중앙회, 고충해결 위한 '이동법률상담센터' 실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박규희)와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19일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2011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 9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촌 지역의 농·축협을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소속 변호사(조정민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농협 이동법률상담센터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소피싱,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될 수 있는 법률 사례 등 실질적으로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와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박규희 위원장은 “농업인에게 폭넓은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축협 사업추진 관련 법률 컨설팅과 각종 제도개선 요청사항 상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중기중앙회, 작지만 스마트한 中企 일자리 104개사 선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워라밸, 성과공유, 직원성장, 근무환경 개선 등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특성을 보유한 '스마트 중소기업' 104개사를 선정해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 중소기업들은 워라밸, 복지, 직원성장, 성과공유 등 최근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특성을 2개 이상 복합적으로 보유한 기업들이다.

이번 스마트 중소기업 선정은 청년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가능성과 적성, 소질에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스마트한 근무여건 등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청년 인재 확보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된 스마트 중소기업들은 벤처기업, 여성기업, 프랜차이즈기업, 코스타기업 등 기업특성이 다양하고 유가공 식음료 전문기업에서부터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까지 영위 업종도 다양하다.

스마트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전주의 (췌바이오프푸드스토리는) 가능성 식품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여성친화적 근무환경(시간선택, 재택 근무, 동계휴

가제도, 7.5시간 근무제도),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스톡옵션, 우리사주, 재충전 휴가지원), 직원을 배려한 다양한 복지제도(건강증진을 위한 cheerup-day, 토닥 토닥 e-복지제도 등)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의 의류제조·판매 기업 (췌지앤지엔터프라이즈) 기업 성장 효과 공유 (사내복지기금 운용 등), 직원의 근무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생산 전 공정 스마트팩토리 구축 중),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정원 외 별도 인력 채용 및 교육 등) 등 인재 육성 중심 지향 기업을 지향하여 선정됐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진원, 창업자원 소통의 장 역할 '특독'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기술창업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오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연합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 회원기업과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전북 입주기업, 그리고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팀 등 80여명

이 참여해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고급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만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 참여하는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만40세 이상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경영·마케팅·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진원이 운영 중인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창업 중단계를 집중 지원하여 우수한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기술 중심 창업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또 다른 참여기업체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전북)는 복권기금으로 조성,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경진원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김윤상 기자

LH전북본부, 문화센터 2기 교육생 선착순 모집

입주민 대상 전문기술 무료교육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문화센터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LH 문화센터 교육은 LH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 개강할 예정이다.

올해 초부터 운영중인 LH 전북본부 문화센터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자활과 창업을 위한 전문 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수료생은 LH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여 개인의 자아성취는 물론 임대단지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LH문화센터 1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LH문화센터에 대한 만족도

를 조사한 결과 9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2기 과정은 1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수업일수를 확대하고 교육환경도 개선했다.

2기 교육과정은 10월 8일부터 8주간(주2회) 진행되며, 풍선아트는 매주 월·화, 이미용은 목·금요일에 진행된다. 수업에 필요한 교구와 수강료 등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참여를 원하는 LH임대주택 입주민은 9. 24일 오전 10시부터 9월 28일 오후 5시까지 LH전북본부 8층 경영혁신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230-6124, 612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이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해외송금 지금이 찬스!

전북농협, '비대면 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 이벤트 총 111명 추첨... 골드바·기프트콘 등 경품 제공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정근)는 10월 31일까지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을 이용해 해외송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골드바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을 신규 등록하고, 500달러 이상 송금한 개인고객 중 총 111명을 추첨해 1등 골드바 3.75g(1명), 2등 골드바 1g(10명),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100명)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비대면 NH웨스턴유니온자동송금 은 최초 1회만 은행을 방문해 송금정보를 등록하면 농협은행의 ATM과 올원뱅크, NH스마트뱅크,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365일 연중 4시부터 23시까지(토·

일·공휴일 포함) 1일 최대 5천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지난 8월 12일 10~20달러의 수수료로 5달러로 일괄 인하했다.

이용대상은 외국인인 포함한 개인으로 송금인이 한국에서 수료를 부담하면, 해외의 수취인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수취할 수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농협은행의 서비스와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금 및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고객행복센터(1661-3000, 1522-3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